

지구촌공생회 우물 홍보대사 위촉식



지구촌공생회의 생명의 물 홍보대사로 나선 '소녀시대'가 12월 8일 KOICA 연수센터 강당에서 월주 스님으로부터 위촉패를 받고 사인을 하고 있다.

“부처님 집 짓겠다 발원”

1억 기부 송명례 보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이보다 더 잘 맞을 수 있을까? 지구촌공생회에 별종처럼 빛나는 보시금이 쏟아졌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송명례(71·사진) 보살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팔아 지구촌공생회에 기부하기 위해 12월 9일 오전 10시경 지구촌공생회의 사무실을 찾았다.

송 보살의 인생은 한 마디로 ‘인간극장’이 따로 없다. 14세에 여섯 식구의 가장이 된 송 보살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짐을 지고 사춘기를 보냈다.

“어찌나 힘이 들었는지 죽고 싶은 마음이 한 두번 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남편을 사별하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를 하며 그녀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는지 대화 중간중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가 65세에 부처님께 귀의 했는데 그때부터 부처님 집(암자)을 지어드리라고 발원했어요. 그러던 차에 월주 스님이 운영하는 지구촌공생회를 알게 되었죠. 그래도 부끄러워서 선뜻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9월에 지구촌공생회에 전재산을 기부한 ‘나눔의 집’ 김화선 보살님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화평 스님(지구촌공생회 사무국장)은 “뜻 깊은 돈을 이렇게 보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살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송 보살의 인생이 담겨있는 1억1000만원의 기금은 네팔에 학교를 세워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박선주 기자



“이름다운 마음 나눌래요”

“어머머 소녀시대잖아? 완전 예뻐, 대~박!”
톱스타의 등장은 어디서나 화제거리가 된다.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기자들의 포토라인까지 넘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소녀시대를 보려고 까치발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의자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이 틈에서 휴대용 카메라로 그들을 담고 있던 경기도 성남 김형모(41)씨는 “소녀시대가 열굴만 예쁘게 아니라 마음도 예쁘다. 소녀시대 팬으로서 소녀시대가 홍보대사로 있는 지구촌공생회 활동에 관심 좀 가져야겠다”고 말하며 연신 흐뭇해한다.

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꿀을 내비에 게 주고 나비는 꽃의 번식을 돕는다. 우리가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독립된 삶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서로 돕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손을 내미는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새로운 손님을 맞이했다.

지구촌공생회의 ‘생명의 우물 1000’ 홍보대사에 요즘 최고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가 위촉된 것.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 제3세계의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겠다는 당당한 의지를 밝힌 소녀시대는 그야말로 밝고 건강한 소녀였다.

12월 8일 KOICA 연수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월주 스님은 “대한민국의 국위를 떨치고 있는 소녀시대가 지구촌공

생회의 활동에 깊은 이해와 참여의사를 밝힌 것에 감사드린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지구촌공생회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져 좋은 뜻이 퍼져나가길 바란다”며 소녀시대를 환영했다. 소녀시대 태연은 “공인으로써 해야 할 일을 찾던 중 지구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지구촌공생회의 아름다운 뜻에 공감해서 참여하게 됐다”며 “홍보대사를 맡게 된 만큼 앞으로 저희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생명의 우물 1000’ 홍보대사 소녀시대 위촉 공생심으로 살면 세상에 평화와 행복 넘쳐나

이에 월주 스님은 “자비행(慈悲行)을 생활화하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평화로운 기운이 함께해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 지구촌 모든 이들이 공생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응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에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녀시대 멤버들은 “팬들 모두 종교가 다르지만 이념과 종교를 떠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협력하자는 뜻은 같았다. 앞으로 해외봉사활동 참가 뿐만 아니라 본인인 방송활동을 통해서도 지구촌공생회의 활동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구촌공생회의 홍보대사가 된 소녀시대는 2003년부터 수인성 질환으로 영유아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몽골과 케냐 등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명의 물 사업을 홍보하게 된다.

‘2009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인구 중 (2007년 기준) 65%만이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에 많은 지원이 있지만 대도시의 소수에게만 집중되다보니 농촌이나 낙후된 지역은 지원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지구촌공생회는 물 부족으로 질병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캄포트·따께오주에 우물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그곳이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 늘 식수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여기에는 빗물을 모아 활용하고, 건기에는 웅덩이에 고인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속원사업을 지구촌공생회가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2005년부터 진행해온 ‘생명의 우물1000’ 사업이 이제 대망의 회항을 향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2010년 1월 우물 1000개째를 완공하게 된다.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사무처장 일화 스님, 한국국제협력단 박대원 총재, SM 엔터테인먼트 한세민 이사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14-1 일본산 후리(자이행탄) 13-1 일본 영원향(소바라) 13-2 일본 영원향(소바라)

2-1 아광용 링크 70 x 35cm / 2-2 밀납초 반야심경 70 x 35cm / 2-3 옥관초·아광용 70 x 35cm / 2-4 봉황복 전사지 70 x 35cm

7-1 P.C 컵 밀납초 발원대 / 7-2 P.C 컵 밀납초 연소시간 약 8시간 / 7-3 바람막이

5-1 웨딩초 육각초 70 x 45cm

15-1 액체 파라핀 18L